

18C末 황해감사 徐邁修의 집무와 해주목 관영시설의 이용 -“海營日記”(徐邁修)를 중심으로-

여상진^{1*}

¹선문대학교 건축학부

The Late 18C *Hwanghae-Gamsa's* Utilization of Governing and Ritual Institutions in *Haeju-Mok* -Focused on “*Haeyeong Ilgi*”(Mae-Su Seo)-

Sang-Jin Yeo^{1*}

¹Division of Architecture, Sun M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황해도의 감영치인 해주목의 관영시설이 황해감사의 직무와 행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18C말에 작성된 서매수의 “해영일기”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황해도의 도계치는 금천이며 신구 감사의 교귀는 금천 또는 배천에서 하였다. 황해감사가 해주에 도임시에 이루어지는 도임 의례는 상당히 화려하고 타 도와 차별적인 점이 존재한다. 해주성 밖의 해운정은 오리정의 용도로 활용되며, 선화당 주변의 백림정과 부용당 및 징청각은 서로 다른 감사의 업무에 대응한다. 그 밖에 비정기적 행례의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을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ate 18th century *Hanghae-Gamsa's*(黃海監司; the provincial governor of Hanghae-Do) utiliz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in *Haeju-Mok*(海州牧) focused on his duties and ritual ceremonies. *Haeyeong-Ilgi*(“海營日記”) which is *Hangha-Gamsa's* official diary written by *Mae-Su Seo*(1731-1818) is closely investigated for that purpose. The arrival ceremonies were held at *Geumcheon* and the *Gyogwui*(交龜; the change-over ritual ceremonies) were held at *Geumcheon* and *Baecheon*. Especially the arrival ceremony held at *Haeju-Mok* is very spectacular compared with other cities. Through this study it was able to confirm the place of regular and irregular ritual ceremonies held and the aspects of governing institutions' utilization in *Haeju-Mok*.

Key Words : *Haeyeong Ilgi*, *Hwanghae-Gamyeong*, *Haeju-Mok*, Governing Institution

1. 서론

조선시대 읍치의 연구 중 팔도의 감영에 대한 연구는 타 읍치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하삼도인 충청, 경상, 전라도의 감영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감영에 대한 연구를 하삼도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러한 읍치 및 감영치의 연구는 대체로 기본적 1차 사료인 읍지를 기초로 감영이나 읍치의 주요 시설을 살피고 현존하는 지도류 등을 통해 개략적인 위치를 살

피는 연구에 치중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해당 읍치와 감영 시설 등의 물리적 구조를 어느 정도 밝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관영시설들이 당해 지방관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었고 어느 시설이 어떠한 의례와 집무에 대응하여 이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미시사 및 생활사적인 연구의 증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지적한 내용은 조선시대 지방 읍치 연구에 있어 향후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Sang-Jin Yeo

Tel: +82-10-3742-7536 email: sjyeo@sunmoon.ac.kr

접수일 12년 08월 23일

수정일 12년 09월 04일

게재확정일 12년 09월 06일

이 부분의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읍지류와 지방 지도류 이외의 대부분의 자료는 서울과 궁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기류 중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1795년부터 1796년까지 황해감사를 지낸 서매수가 남긴 “해영일기”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황해도의 감영치인 해주목의 주요 관영시설이 감사의 집무와 행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서매수가 남긴 “해영일기”는 다른 감영 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이 주목되는 사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재로서는 갈 수 없는 곳인 해주의 전통 도시 모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황해도의 감영은 황주, 풍천, 해주였다가 1449년(세종 31) 해주에 병영, 황주에 감영으로 정해져 지속되다가 1601년(선조34)에 다시 해주가 감영으로 확정되어 일시적인 강등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내내 감영으로 지속되었다.

해주에 대한 읍지는 비교적 상세한 읍지가 남아 있으나 해주의 가시적인 면을 보여주는 지도류는 다른 감영처에 비해 볼 때 상당히 적고 소략한 편이다. 본고에서는 “해영일기”를 통해 분석된 해주목의 각 관영시설이 차지한 의미와 위상을 지도 등의 가시자료를 활용해 투영시켜 보고자 한다.

2. 해주목의 주요 관영시설과 “해영일기” (서매수)

2.1 해주목의 주요 관영시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지방 관영시설의 파악은 기본적으로 지도류와 해당 읍치가 수록된 읍지류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도류는 대단히 상세하게 그려진 몇몇 회화식 지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가 건물 표현의 간략화 혹은 생략 등으로 주요 시설의 상대적 위치관계 이외에 읍치 내 관영시설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해주목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주목의 주요 관영시설의 파악은 조선시대에 발간된 읍지를 통해 가능하다.

해주목이 수록된 주요 읍지로는 영조대의 “여지도서”, 현존 최고 황해도 통지로 1871년(고종8)에 편찬된 “해서읍지” 및 1898년(광무2)에 편찬된 “황해도전지” 등이 포

함된 ‘해주읍지’, 1899년(광무3)에 편찬된 “황해도각군읍지”에 포함된 ‘해주지’, 그리고 고종대에 편찬된 “해주지”와 연대 미상인 “황해도해주읍지” 등이 있다.[1] 그런데 이들 읍지의 편찬년도는 해당 읍지 내 편목의 실제 내용과 사뭇 다른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즉 “황해도각군읍지”(1899)에 포함된 ‘해주지’는 선생안 등의 인물만 추가시켰을 뿐 1책, 2책의 내용은 현재 전하지 않는 영조대에 만들어진 “해주지”를 전사한 것이다.[1][2] 따라서 앞선 시기의 읍지인 “해서읍지”의 ‘해주읍지’ 보다 더욱 상세하다. 읍지 편찬 년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읍지에 기재된 해주목의 관영시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해주목의 관영시설

【Table 1】 The governing institutions in Haeju-Mok

여지도서 (영조대)	監營	公廡	宣化堂(首陽館), 內衙, 栢林亭, 觀風閣, 澄清閣, 芙蓉堂, 顧思軒, 孤竹館, 鎮西軒
	海州牧	公廡	安西館, 首陽館, 淸風軒, 孤竹館, 鎮西軒, 靑丹郵館
해주읍지 (1871)		公廡	安西館, 宣化堂, 慈勇堂, 孤竹館, 鎮西軒, 靑丹郵館
해주지 (1899)		署廡	安西館, 首陽館, 宣化堂, 觀風閣, 布政門(望月樓), 孤竹館, 顧思軒, 淸風軒, 敬簡堂, 內衙, 鎮西軒, 靑丹郵軒, 三司
		附廳舍	鄉社堂, 鍊武堂, 州訓練, 奮武堂, 伺候廳, 別將廳, 內司僕廳, 巡營吏廳, 管餉堂吏廳, 鎮撫廳, 醫生廳, 管餉軍官廳, 州司, 作廳, 訓導廳, 使令廳, 官奴廳, 別武軍官廳, 別抄軍官廳, 通引廳, 轉餉軍官廳, 羅將廳, 軍牢廳, 營奴廳, 教坊, 驛作廳, 守門將廳, 中營軍官廳, 吹鼓手廳, 巡令手廳

“여지도서”에는 해주감영을 기록한 ‘營誌’와 해주목의 읍지 두 부분에서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데 두 곳에 반복 기술된 시설이 많다. 당시 검목제 시행에 의해 황해감사가 해주목사의 역할까지 겸하였던 것도 영향이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략한 “여지도서”와 “해주읍지”(1871)에 비해 ‘해주지’(1899)에 기록된 내용은 매우 자세하다. “여지도서”나 “해주읍지”에 기재된 주요한 시설은 ‘署廡’조에 신고 부속되는 시설은 ‘附廳舍’라 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또한 편찬 이전시기 즉 1700년의 읍지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주의 읍

치시설을 파악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각 읍지의 기사를 종합하고 선생안을 대조해 주요한 시설과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서관은 해주목의 객사로 1695년(숙종21) 목사 조지항이 명명하였다. 수양관은 선화당으로서 예전에는 안서관에 대응하는 신별관이였다. 예전의 선화당은 1710년(숙종36)에 감사 이제가 창건하였으나 여지도서가 작성된 영조대에도 이미 내아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 영역에 속하는 관공각은 1721년(경종1) 감사 김유경이 창건하였다. 고사헌은 비장, 청풍헌은 판관, 고죽관은 도사(도사영), 진서헌은 중군, 청단우관은 찰방의 집무처 들이다.

2.2 서매수(1731-1818)와 “해영일기”의 특징

서매수(1731-1818)의 본관은 大丘, 자는 德而, 호는 戀軒, 시호는 翼憲이다. 영조 제1비 정성왕후 집안 출신이다. 음보로 참봉, 신령현감을 지내고 1787년(정조11) 당진현감 재직 중 56세의 나이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대사간, 황해감사, 이조 참판, 대사헌, 지돈령 부사, 공조, 형조, 예조판서를 지내고 1804년(순조4)에 좌의정, 1805년에 우의정에까지 이르렀다. 학술과 재능은 없었으나 성격이 원만 근면하였다고 평가받는다.[4][5] 이러한 그의 성격은 그가 황해감사 재임시에 작성한 “해영일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림 1] 서매수[4]와 해영일기
[Fig. 1] Mae-Su Seo[4] and Haeyong-Ilgi

서매수의 “해영일기”는 그가 1795년(정조19) 3월 7일 황해감사로 제수된 날로부터 감사에서 파직되고 1796년(정조20) 12월 22일 서울의 자택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사환일기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18C에는 감사가 작성한 사환일기가 대폭 증가하는데[6], 이들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적은 생활일기와는 달리 개인적인 감정과 내용을 배제하고 관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일종의 행정업무일지라 할 수 있다. 연도별로 건, 곤 2책으로 구분된 필사본으로, 원본은 미국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Asami Library)에 소장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름 표제는 ‘금영록’(M古3-1995-31)으로 충청감영의 일보인 금영록의 후반부에 같이 묶여있다.

일기의 기록은 날짜 다음에 날씨를 적고 해당 일의 주요 일과를 적었는데 마지막 끝에 풍향을 적은 점은 특징적이다.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올린 장계 등의 문서 처리에 대하여는 일기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경상감사 조재호의 “영영일기”(18C중반))와 문서의 내용 모두를 기록한 경우(전라감사 서유구의 “완영일록”(19C초)) 등이 있는데, 본 일기에서는 장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본문 중에 적어 내용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매수가 작성한 “해영일기”가 다른 감영일기에 비해 특징적인 점은 일기의 내용이 대단히 상세한 점에 있다. 때에 맞추어 진상한 물품의 종류와 진상 대상에 따른 수량을 자세히 기록함은 물론 교귀, 망꺠레, 향축을 받는 의식, 기우제 등의 내용이 참여자와 실행 사실만 주로 기록된 다른 일기에 비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재임기간 내에 일식과 월식이 있어 지방 감영에서 행한 구식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일기에 비해 대단히 특징적이다. 한편 일부 감사의 일기는 임기 마지막 부분이 소략하거나 끝까지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본 일기는 제수된 날로부터 임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날까지 충실히 기록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2개년간의 기록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상시적인 행례와 공간사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도 본 일기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18C말 황해감사 서매수의 도입과 행례

3.1 황해감사 서매수의 도입과 교귀

감사의 부임은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감사에 제수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사은 및 사조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임지에 부임하는 것이다. 사은이란 임관된 자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에서 궁궐에 들어가 대전, 대비전, 중궁전, 세자궁 등에 사은숙배를 드리는 것이며, 사조란 사은숙배를 드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부임준비를 끝내고 다시 입궐하여 왕에게 하직의 숙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7] 신임 감사의 임무는 도의 경계를 들어서면서 시작되는데 이를 도계라 하고 임지에 도착하는 것을 도입이라 한다. 도의 경계에 들어서면서 친구 관찰사가 符信 넘겨주고 받는 의례 즉 임무의 교대를 행하는데 이를 교귀라 한다. 도계, 교귀 및 감영처에 도입하게 될 경우 많은 인원이 나와 격식에 맞춘 의식이 행해지게 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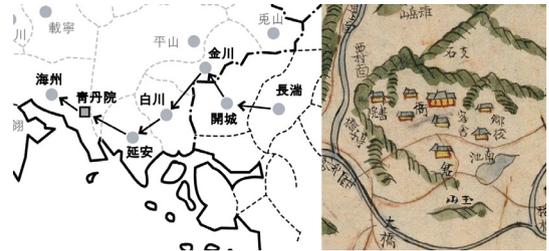
서매수는 1795년(정조19) 3월 7일에 황해감사에 제수 되어 11일 사직 소장에 대한 비답을 듣고 12일 사은숙배를 하였다. 3월 17일 아침에 하직 숙배를 올리고 해질 무렵에야 친히 밀부와 輝物을 받고 교유서를 받들어 군관과 前營將이 행차의 앞을 인도하는 가운데 떠나 新門 밖 경기 新中營 下處에서 밀부를 개봉하였다. 다시 떠나 숙소인 고양에 도착하였을 때는 날이 어두울 때였다. 다음 날 파주에 묵고 다음날 장단을 거쳐 개경에 묵은 것이 3월 19일이다.

신임 황해감사 서매수는 3월 20일 황해도 금천에 도계하였다. 일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40리를 가서 금천 경계 두석산 모퉁이에 도착하니 營門 執事가 경계상에 기다리고 있었다. 手旗를 올리고 軍物을 줄지어 前導하여 또 5리를 가니 금천군수, 평산부사, 배천군수, 신계현령, 금교찰방, 기린찰방, 청단찰방, 백치첨사가 교유서를 遠望 祇迎하고 前導하여 午時에 아동헌에 도착하니 각반 하인이 차례로 입알하고 병마절도사 이하 각 邑驛鎮城屯官이 아울러 到界 公狀을 바쳤다. ... 西時에 배천에 도착하니 배천군수가 五里程 公狀을 바치고 아동헌에 도착하여 舊使와 더불어 교귀하였다. (을묘년(1795) 3월 20일, 이하 人名 생략)

위 기록을 통하여 황해감사가 도계하는 읍치는 금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황해도 경계 길목에서부터 깃발과 군물을 줄지어 맞이하기 시작하여 각 수령과 찰방이 교유서를 맞아 지영하는 곳은 도 경계로부터 5리정도 떨어진 곳이며 이후 금천 아동헌에서 도계의 행례가 이루어졌다. 신구 감사의 교귀는 감영처 해주로 가는 길의 다음 읍치인 배천의 아동헌에서 행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서매수가 임기를 마치고 다음 신임 감사 민치혁과의 교귀는 배천이 아닌 도 경계 금천에서 행하여 비교가 된다.(병진년(1796) 12월 19일)

“여지도서”의 일부 읍치 기록에 의하면 도계하는 감사의 행렬을 맞이하는 곳에는 정자가 있어 이곳에서 도계와 교귀의 행례가 이루어진다. 경상도 문경의 교귀정, 전라도 여산의 황화정, 충청도 진천의 광혜원 결 정자 등이 그것이다.[3] 그런데 위 일기의 기록들을 참조하면 당시에 황해도에 도계나 교귀를 위한 누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도계는 금천으로 하되 교귀는 금천 또는 다음 읍치인 배천에서 행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곳 모두의 행례 장소가 통상적인 객사가 아니라 아동헌 즉 아사로 표현된 점 또한 대단히 특징적이다.



[그림 2] 서매수의 도임행로(좌)와 도계처 배천(우)[8]
[Fig. 2] The arrival route of Mae-Su Seo (Left) and the Baecheon (Right)[8]

3.2 도임시 감영처 해주목의 행례

배천에서 교귀한 뒤 하루를 묵은 서매수는 다음날 정안을 거쳐 해주목 경내로 들어서 청단원에 도착하여 숙소로 삼고 다음날인 3월 22일 해주 감영에 도임한다. 이날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식후에 떠나 50리를 가서 해운정에 도착하여 잠시 下坐하니 畫師 軍官이 명함을 올리고 중군이 갑주를 갖추고 대기치를 성저에서 거느리고 장교 군병이 결진하여 放砲하고 吶喊(군사가 일제히 고함을 지름)하기를 세 차례 하였다. 轅門을 열리는 명령을 전하고 말을 타고 行吹打하니 판관, 용모첨사, 수양별장, 검물, 역학이 교유서에 遠望 祇迎하고 前導하였다. 중군, 첨사, 별장의 영명례는 비장을 시켜 대행하게 하였다. 오후에 上營하여 公禮를 행하되 私禮는 除하고 대좌기하니 판관 청단찰방 용모첨사 수양별장 검물 역학 이하 각 반 하인이 禮數를 행하고 중군 이하 제 장교가 군례를 행하고 파좌하였다. (을묘년(1795) 3월 22일)

정안은 인접 읍치이지만 해주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이다. 따라서 해주 감영에 도임하기 전에 청단원에서 하루를 지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청단원은 “여지도서” 해주목의 ‘청단역’이다. 해주 관아 동쪽 60리에 있는데 본래 찰방이 있었으나 중간에 성 안으로 이주하고 역졸만 그대로 산다고 하였다.[3] 앞서 2.1절에서 읍지를 통해 살핀 청단우관(청단우헌)이 바로 성안으로 이주해 찰방이 집무하는 곳으로 대부분 지도에서는 이곳을 청단역으로 표기하므로 구별을 요한다. 찰방 근무처인 驛이 성내에 존재하는 것은 다른 곳과 차별된 해주목의 특징이다. 서매수의 해영일기에는 청단찰방이 감사를 문안한 기록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이는 청단역이 성내에 존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림 3] 서매수 도입행로와 청단원[9]
[Fig. 3] The arrival route of Mae-Su Seo and the Cheongdan-Won[9]

해주 감영에 감사 도입시 특징적인 점은 군병이 동원된 의식이 대단히 화려하다는 점에 있다. 중군이나 영장이 대기치를 거느리고 마중 나오는 것은 타 감영에서도 있는 일이지만[10], 결진하여 포를 쏘고 납함을 하는 것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경지인 함경도나 평안도의 경우와 비교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 된다.

한편 이러한 의식의 시작에 해운정이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해운정은 동정자라고도 하는데 관아의 동쪽 5리에 있다. “해주지(1899)”에 의하면 ‘舊誌에 신구 감사가 印을 교환하는 곳’이라 되어있으므로 해주목의 오리정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감사의 교귀처로도 이용되던 정자임을 알 수 있다. 지도에서 확인되는 해운정 주변에는 훈련원이 자리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4절에서 언급하겠지만 훈련원에서는 무사와 관련된 많은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이며 너른 연병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황해감사 도입시 화려한 군병의 의식은 이러한 해운정과 훈련원의 위치관계 속에서 한층 더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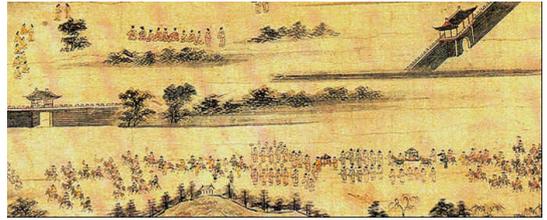
이후 해주성 남문으로 말을 타고 들어간 감사의 행렬은 객사와 선화당에 이르러 도입에 따른 각종 행례를 하고 파좌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해운정과 훈련원(좌) 및 해주 남문 順明門[13](우)
[Fig. 4] Haeyonjeong and Hunryeonwon (Left) and Haeju South-gate[13] (Right)

한편 시기적인 차이가 크고 유명행정 체제인 점이 크게 달라 행차 규모가 다르겠지만 16세기 중반 윤두수가 황해감사로 부임할 당시를 그린 아래 그림을 통해 해주

성문을 통해 들어서는 황해감사의 도입 행렬은 다소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5] ‘류영수양관 연명지도’(경기도유형문화재 149호)
[Fig. 5] The picture of arrival ceremony of Hanghae-Gamsa

도입 행례를 마친 신임 감사는 다음으로 향교에 알성을 하는 것이 통례다. 서매수는 도입 다음다음날 행례를 하였다. 도입한 다음날인 23일에는 비가 왔으므로 그 다음날에 행례한 것으로 보인다. 향교 행례를 마치고 청성묘에서도 행례를 하였는데, 청성묘는 백이와 숙제를 배향한 서원으로 해주의 수양산이 이름이 같은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른 아침에 흑단령을 입고 남여를 타고 향교에 가서 교유서를 명륜당에 안치하고 곧바로 殿庭에 들어 四拜禮를 행하고 친히 분향하고 位로 내려 돌아와 四拜하고 명륜당으로 나오니 동서재생이 庭揖하였다. 避席하여 答揖하고 다음으로 相揖禮를 행한 후 입알하였다. ... 다음으로 청성묘에 가서 廟庭에 곧바로 들어 친히 분향하고 再拜禮를 행하고 강당으로 나오니 齋生이 입알하였다. ... 오후에 개좌하여 제 장교 각반 하인 禮數하고 營州 각반 하인 점교한 후 파좌하였다. (음묘년(1795) 3월 24일)



[그림 6] 서매수 해주목 도입 행례처
[Fig. 6] The ritual ceremony site of Hanghae-Gamsa' arrival

이상으로 서매수가 감영치인 해주에 도입하여 행한 행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주 지도 중 비교적 자세한 ‘1872년 지방지도’에 순서를 고려해 표기해 본 것이 위 [그림 6]이다. 이렇게 새로 부임하는 지방관이 임지의 경내에 들어서서 행하는 각종 의식과 절차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현시하는 과정이자 권위 그 자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의식이 된다는 점[11]을 바탕으로 읍치시설과의 대응 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4. 18C말 황해감사 서매수의 집무와 해주 읍치시설 이용

4.1 서매수의 집무와 해주의 읍치시설

조선시대 각 도 감사의 업무는 도내 수령을 규찰 탄핵 및 포폄하고, 권농, 구휼, 시취, 수세, 재정, 교육 및 기타 일반 행정과 죄인의 수감과 치죄, 소송의 판결 등 사법 행정, 유사시 군 지휘권을 비롯한 군관의 시취와 포폄 등 평상시의 군사행정을 포괄하는 등 민정 군정 일체의 통치행정을 전제하는 것이었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직계권을 가지고 있었다.[12]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집무 중 해주의 읍치시설과 관련되어 일기에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공식적인 직무는 보통 ‘개좌’ 혹은 ‘좌기’로 표현된다. 일기에서 개좌 등으로 표현된 직무는 점고, 시취 및 삭시사, 동지 및 탄일의 방물이나 매달의 진상품을 監封하는 경우, 드물지만 죄인을 형추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개좌 기사는 진상품을 감봉하는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업무인 좌기는 선화당에서 행하는데 일기에서 장소는 따로 적지 않았다. 일기에서 특별히 장소를 언급한 좌기의 장소는 백림정으로 시취 혹은 삭시사 등을 행하였다.(표 2 참조) 백림정은 수양관 즉 선화당의 바로 북쪽에 있으며 “여지도서”의 ‘감영’ 공해조에 백림정이 정자로서는 유일하게 언급된 것과 같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대비되는 누정이 부용당이다. 부용당은 수양관(선화당) 남쪽에 있는 연못 가운데에 있다. 감사가 부용당에 간 경우 ‘하좌’라 구별해 달리 표현하였고 일 처리는 물론 풍악 또는 가사를 듣거나 담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연못에 접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음력 6월과 7월에 대단히 많이 이용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영에서 개좌가 필요한 공식적 집무는 선화당에서 행하지만 통상의 일상적인 집무는 징청각을 이용한다. 해주 감영에서 징청각은 영조대 “여지도

서”에만 언급될 뿐 이후의 읍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표 1 참조) 일기에는 징청각이 등장하지만 부용당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판관이나 배천군수가 문안 입알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판관이나 청단찰방이 문후한 경우 뿐이다. 따라서 해주 감영에서 평상시의 업무와 각종 행사 후 유희의 장소로는 선화당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부용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 해주 부용당[12]
[Fig. 7] The Buyongdang in Haeju-Mok

성 밖의 해운정이 오리정과 같은 역할을 하였음은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배를 띄우고 妓樂을 즐긴 경우(1796.6.4, 7.17)도 있으나 서매수가 매해 두 차례의 춘추 순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중군과 재 장교 등이 돌아오는 감사를 마중 나오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성 밖의 수양산성을 간심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잠시 쉬는 용도로 활용(1976.4.28)되었다.



[그림 8] 해주목의 주요 누정
[Fig. 8] The major pavillion of Haeju-Mok

탁열정은 성 북쪽 3리 광석천가에 있는데 무더운 여름에 거룻배를 띄우고 기악을 즐기는 장소로 주로 이용되었다.

[표 2] 해주목 주요 누정의 이용

[Table 2] The major pavillion of Haeju-Mok and its utilization

장소	이용 관련 기사
栢林亭	1795.4.19(賞射), 5.26, 6.16(賞射), 7.14, 7.25(開坐, 朔射講 試取) 8.16(開坐, 朔射講 試取) 10.19(開坐, 都試 試射 試取), 10.27(開坐, 朔射講 試取), 12.25(取才 試射 分等 施賞), 1796.4.24(射帳), 5.4(射帳), 5.27(開坐, 朔射講 試取), 6.25(朔射講 試取), 7.23(射帳)
芙蓉堂	1795.3.25, 4.17(下坐, 文武白日場 呼鍾 設風樂 進 蓋床 分等 施賞), 4.26(下坐, 聽 嵇笛), 6.7, 6.9(下坐, 狀啓 奉送), 6.10(褒貶殿最 下坐, 設風樂 進 茶啖), 6.17(求食禮 下坐, 暫 張樂), 6.18(逢賀禮 下坐, 設風樂), 6.19(下坐, 設風樂), 6.23(下坐), 6.24(下坐, 聽 歌琴, 狀啓 奉送), 6.27(下坐), 6.28(下坐), 7.2(下坐), 7.7(下坐, 狀啓 奉送), 7.10(下坐), 7.11(下坐, 惑談話 惑歌琴), 7.18(下坐, 設樂 觀舞 聽歌琴, 薦新 看品), 12.30(下坐 設樂) 1796.4.15(下坐, 技工 聽笛), 4.23(下坐), 5.10(下坐 開坐, 5月朔 進上 奉進), 6.15(下坐), 6.18(設 大風樂), 6.21(下坐, 狀啓 奉送), 7.5(聽 歌詞), 7.7(下坐, 談話), 7.18(下坐, 設 風樂), 7.22(下坐), 9.12(箋文 祇送 下 設樂), 12.15(下坐)
澄清閣	1795.9.6(判官 入謁) 1796.2.26, 2.29(배친군수 入謁), 6.26, 11.11(배친군수 入謁), 11.28-30(기운이 不平), 12.2(問安), 12.3(問安)
海雲亭	1795.3.22(到任時), 4.6(순력 후), 8.13(순력 후), 8.29(순력 후), 9.12(陪箋 후) 1796.3.20(漕池 看審 후 設風樂 進別味), 4.4(순력 후, 잠시 泛舟 設樂), 4.28(수양산성 看審 후 下坐 잡수 삼), 6.4(接生 面試 白日場, 乘舟 設樂), 7.17(배타고 횃불을 池 주변과 물위에 띄우고 妓樂)
濯熱亭	1795.5.6(狀啓 奉送, 設風樂 觀劍舞), 6.11(設 大風樂), 6.20(7月朔 進上 封送 후 設 風樂), 6.25(開坐, 朔射講 試取, 聽歌琴), 7.5(나룻배 妓樂), 7.17(나룻배 妓樂) 1796.4.25(教諭書 節鉞 亭上 安置, 開坐 諸將校 朔射講 試取), 5.26(沸流潭 觀漲 후 觀漲), 6.11(開坐, 別賞 射取, 移坐 軍幕 妓 載舟 張樂), 6.19(나룻배 妓樂), 7.11(移坐 軍幕 배 띄워 劍舞), 7.15(妓工, 衆妓와 乘舟), 7.24(設風樂 觀妓舞)

한편 문무의 시취도 감사의 주요 임무다. 해주 유생의 백일장 장소는 적혀 있지 않으나 設樂과 시상은 부용당을 주로 이용하였다.(1795.4.17, 1796.4.12) 무사 백일장, 별무사 騎芻, 향기사 都試, 향기사 騎芻 등은 모두 훈련원에서 시행되었다.(1795.4.17, 9.25, 9.28, 9.29, 10.6, 10.18, 1796.4.12, 9.20, 9.23, 9.25, 9.29, 10.3, 10.6) 따라서 장소가 언급되지 않은 出身都試, 선무군관 都試 등도 훈련원에서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796.10.13, 10.14)

4.2 서매수의 정기·비정기 행례와 행례처

정조와 동지, 대전의 탄일을 맞아 감사는 도내 2품 이상 수령과 대도호부사, 목사 등의 진하전문을 국왕에게 봉상하며 배전의를 행하고 당일에는 요하의를 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행례 절차는 “국조오례의”에 정해져 있다. 전패를 정청에 설치하고 행례하므로 객사가 주요한 행례처가 됨을 알 수 있는데 해영일기에서도 館所라 표기되어 객사인 안서관이 주요한 행례처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1796년 11월 12일 동지 전문을 고족상에 안치하였다가 그 다음날 배전의를 행하는 모습이다.

식후에 陪箋(을 위해) 흑단령을 입고 座馬하여 館所에 가서 판관, 풍천부사, 토산현감, 장연현감, 청단찰방, 검률, 심약, 역학과 함께 入庭하여 四拜하고 西階로 말미암아 올라 殿前에 가서 差使員 금교찰방과 함께 受授禮를 행하고 내려와 復位하여 四拜禮를 행하였다. 인하여 동헌에 가니 차사원이 請入하고 箋文을 外封裹하였다. 冢官이 請入하여 進茶하고 차사원이 하직하다. 陪箋(으로) 座馬하여 남문 밖에 이르러 보내고 선화당으로 돌아왔다. (병진년(1796) 11월 13일)

위 기사에서는 남문 밖까지만 지송하지만 남문 밖 배표정까지 지송하기도 한다.(1795.6.12, 1796.9.12) 한편 중앙으로부터 반교문이 내려올 경우 역시 배표정까지 나아가 祇受하여 객사로 전도하여 행례하였다.(1796.3.9, 11.14)

도내 향교를 개수하거나 위판을 이안할 경우 병조 서리가 향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때 판관이 대행하여 祇受한다.(1795.5.5, 1796.1.26, 2.20, 9.12) 그런데 하서 김인후가 문묘에 승배됨으로써 내려온 향축은 흑단령을 입고 심약과 함께 객사 문 앞에 직접 나가서 祇受하고 객사에서 행례하였다.(1796.10.26)

영명례는 객사에서 행하게 되는데 다른 일기의 사례에서도 파악되듯 거의 모두를 비장이 대행하며 형식적으로 행해진다. 그런데 1976년 가을 순력시에 감사 서매수가 황주에 이르자 병사 김사목이 영명례를 거부하였다. 김사목은 전에 황해감사를 지냈으나 병마절도사로 좌천된 것이므로 비장이 대행하는 영명례를 거부한 것이다. 비록 용서를 받았으나 이 일이 보고되자 비변사로부터 파면과 논죄의 의논이 있었다.(1906.9.2 및 정조실록 20년 9월 4일 참조) 본 일기와 거의 같은 시기인 1780년(정조4)에 충청감사 심이지가 쓴 “금영일기”에서 영명례는 모두 비장이 대신하였지만 兵使와 水使의 영명은 직접 받았다고 특별히 기록 한 것과 비교해 볼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세태와 관련하여 19세기 초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영명

례의 본 뜻이 오해되어 ‘병마사와 수군사는 관찰사와 같은 使臣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을 시켜 영명례를 대신 받게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망궐례도 객사에서 행하게 된다. 서매수는 이를 거의 빠지지 않고 예하 관원과 함께 새벽에 객사에서 설행하였다. 그런데 1796년 10월 28일 이후의 망궐례는 거의 權停하며 심지어 11월 23일의 동지 요하례까지 권정하였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면 이는 서매수가 올린 상소로 인해 11월 26일 파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신임 감사가 차정되어 내려와 교귀하기 전까지 파직된 감사가 행하는 행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기적인 몇 가지 제례를 살펴보면 먼저 기우제는 사직단(1795.5.18)이나 龍堂祭所(1795.6.6)에서 행하였는데 그 행례 내용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각종 지도를 참조하면 용당의 제소가 기우소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용당의 기우소[14]
[Fig. 7] The rain calling ceremony site[14]

1796년 6월 1일에는 일식이 있어 구식례를 행하였다. 구식례에 대한 “국조오례의”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 날 百官들은 각각 本司에서 복을 廳事의 앞에 놓고, 事전에 모두 素服 차림으로 복 뒤에 겹줄로 해를 향하여 선다. 처음 해가 이지러지면 쉼을 피우고 복을 치다가 밝은 빛이 회복된 후에 그만 둔다. 밤의 일식은 구제하는 의식이 없다. 지방 관원의 일식을 구제하는 의식도 이와 같다. (“국조오례의”, ‘군례’, 救日食儀)

서매수의 기록에 의하면 구식례는 중군, 판관, 청단찰방, 三司로 하여금 대행케 하였는데, 이때의 행례 장소는 ‘館所 대문 밖에 동향으로 設 倚幕하여 救食’하였다고 적었다. “국조오례의”에서 언급한 ‘본사의 청사 앞’이란 지

방 관청에서 객사의 대문 밖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월식이 있었는데 역시 중군이 일식과 같은 의식으로 행례하였는데 그 장소 역시 館門 밖으로 변동이 없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고는 서매수가 1795년(정조19) 3월 7일 황해감사로 제수된 날로부터 임무를 마치고 1796년(정조20) 12월 22일 서울의 자택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관직 생활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사환일기인 “해영일기”를 대상으로 하여 황해도의 감영처인 해주목의 주요 관영시설이 감사의 집무와 행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피고자 한 것이다. 본고를 통해 파악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해감사의 도계처는 금천이며 친구 감사의 교귀는 금천 또는 금천에서 해주로 가는 다음 읍치인 배천에서 행해지기도 하였다. 해주로 들기 직전의 읍치인 정안에서 해주까지는 먼 거리이므로 청단역에서 하루를 지내고 해주에 도입하게 되는데 이때 성 밖에 위치한 해운정이 중요한 오리정의 용도로 활용된다. 또한 황해감사의 해주목 도입에는 많은 군병이 동원되어 의식이 대단히 화려하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해운정 가까이에 훈련원이 있어 이러한 행례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 후 객사와 선화당의 행례 이후에는 향교와 청성묘에서 행례한다. 선화당 이외에 백림정, 부용당, 징청각 등을 감사가 집무처로서 활용하는데 각 건물별로 몇몇 차별점이 있으며 이는 본문에 밝힌 바와 같으며 특히 부용당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무과의 시취 등은 모두 훈련원을 이용한다.

한편 반교문이나 특별한 향축 등이 내려올 경우 감사가 남문 밖 배표정까지 지영을 하며, 기우제는 사직단과 용당의 제소에서 행하고 구식례는 객사의 대문 앞에서 행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읍치 내 각 시설이 각 의례와 행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파악함과 동시에 “국조오례의” 등의 규정이 해당 읍치에서 어떻게 준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행례의 사례들은 현재 북한에서 복원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용당 등의 해주의 물리적 실체에 상당한 인문적 내용을 부여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본고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기사로 자체가 지니는 은닉성 즉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일과와 장소는 기록되지 않았을 한계점도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 감영에서 행한 구식례의

행례처 등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본고와 같은 일기사료의 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된 내용은 향후 타 감영처 특히 국경에 위치한 평안도와 함경도 감영처에 대한 분석과 상호 비교를 함으로써 각 감영처의 특징적인 점이 더욱 확실히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과제로 삼는다.

References

- [1] Bo-Kyoung Yang, 'The Preface of *Hanghae-Do Eupji*', "Eupji" Vol.12, pp.1-15, Ahsea-Moonwha-Sa, 1985.
- [2] Tae-Jin Lee, 'The Preface of *Hanghae-Do*', "The Private Published *Eupji* of Joseon Dynasty", Vol.31, pp.6-7, Institute of Cultural Sciences of Korea, 1990.
- [3] "*Yeojidoseo*" (photographic editi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973.
- [4] <http://encykorea.aks.ac.k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5] "Biographical Dictionary", Minjung-Seokwan, 2002.
- [6] Sang-Jin Yeo, 'An Elementary Analysis of Local Governors' Diaries for the Restoration and Utilization of Official Facilities of Local cities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No.7, pp.2676-2686, 2010.
- [7] "The Overall Studies of *Kyeongsang-Gamsa*", Cultural Center for Youngnam, 2004.
- [8] "*Ji-Seung*"(Gyu 15423), <http://e-kyujanggak.snu.ac.kr/>
- [9] 'Haeseo Map', "*Bibyeonsa* Section Maps"(Gyu 12158)
- [10] Sang-Jin Yeo, 'The early 19C *Jeolla-Gamsa*'s utilization of governing and ritual institutions in *Jeonju-Bu* on *Wanyeong Ilrok*',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No.2, pp.658-665, 2010.
- [11] Hyeok Kim, 'The Ritual of Accession to Office of a Village Magistrate in the Late Choson - Utiling *Ijaenango* as Center Data-', Journal of The Choson Dynasty History Association, Vol.22, pp.153-180, 2002.
- [12] Hee-Kwon Lee, "A Study of Local Buling Administration in Later Choson", Jip-Moon-Dang, 1999.
- [13] Kyeong-Seok Son, "The Modern Korea from the Pictures", pp.10-12, Seo-Moon-Dang, 1986.
- [14] "*Haedong* Map" (*Go-Dae* 4709-41)

여 상 진(Sang-Jin Yeo)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역사, 건축문화재, 공동주택